"어쨌든 집 문을 두드려라!" 저는 사노 신이치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.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발을 옮기면서 정보를 얻으라고 배웠습니다. 스무 번째 집에서 얻을 수 없을 때, 스물한 번째 집에서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. 언젠가는 신이 도와줄 것입니다. 그 신을 '취재의 신'이라 부릅니다. (중략) 글을 쓰려고 할 때 좋은 글을 쓰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고, 머릿속에 쌓여 있는 말들이 떠오르게 마련입니다. 어렸을 때 부른 노래를 지금도 자연스럽게 흥얼거릴 수 있는 것처럼 감동받은 책의 내용은 지금도 떠올릴 수 있고, 글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는 저에게도 있으니까요. 더군다나 똑같은 내용의 취재를 할 경우 선배의 글을 읽고 참고하게 되는데, 이럴 때 선배의 관점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제가 알았든 몰랐든 아슬아슬한 부분은 있었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 작가에게 오리지널리티는 생명입니다.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.

—야스다 고이치와의 좌담 중에서

이 책이 '금서'판정 받은 다음부터 민간에서는 천만 권에 달하는 각종 '해적판'이 여기저기 퍼졌다. 당시의 정부는 언론매체에 '금지령'을 내렸지만, 다행스럽게도 새로 출범한 중앙정부는 우리가 책을 통해 호소한 문제점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. 그 문제들 중 얼마간은 이미 해결되었다. 예컨대 2600년 동안 내려온 '황량국세'로 불리던 농업세가 폐지되면서 현재의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 농업세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경작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—천구이디와의 대담 중에서

시 | 최종천, 김영승, 임선기, 변홍철, 문계봉, 박성한, 김명철, 이성혜, 이병국, 김림
소설 | 단편소설_조혁신, 박정윤
노마네 | 동시_김성민 | 청소년시_박일환 | 동화_김민령
특집 | 기획의 말·낮은 비명들과의 대화_이설야
한중일 르포작가들과의 대화_김순천, 천구이디, 야스다 고이치
새로운 글쓰기·음성 놀이-대화와 글쓰기_심보선
비평 | 한국문학의 추문 속에서 새로운 삶의 세계를 꿈꾸는_고명철
담·담·담 | 한국의 판각문화와 인쇄_홍선웅
우현재 | 짬봉의 시원을 찾아서_이종복
르포 | 다음 생이 주어진다면_송기역
민중열전·나는 몰랐네_김해자
서평 | 손병걸, 임수인, 신현수

ISSN 1739-4538
00953
9 771739 453009
계간 「작가들」 2015년 가을 | 통권 54호 값 13,000원

2015
가을

작가들

54

르포문학 - 한중일
르포작가들과의 대화

인천작가회의
출판부

작가들

2015 | 가을

54

특집 | 르포문학 - 한중일 르포작가들과의 대화
_이설야, 김순천, 천구이디, 야스다 고이치, 심보선
담·담·담 | 한국의 판각문화와 인쇄_홍선웅

인천작가회의
출판부